

## 지혜 절제 용기



국내 인쇄업계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인쇄인들이 지혜와 절제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갖춘 풍부한 인맥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상류층을 두텁게 쌓음으로써 인쇄문화산업을 밝게 비추는 등대역할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기대해 본다.

요즘 우리 생활주변에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가 약방의 감초격으로 온갖 곳에 끼어들고 있으나 어찌 어색하게 들리곤 한다. 웰빙식단을 시작으로 웰빙가구, 웰빙의류 등 우리 의식을 휘감고 있어 영어생활권 국민들도 잘 안쓰는 '웰빙'을 냄비 끓듯이 너무 들먹이지 않나 모르겠다. 웰빙을 우리말인 '참살이'로 바꿔 부르고 있으나 어색하긴 마찬가지이다.

편안하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인데 잘 산다는 것은 돈을 잘 버는 일로 개념화된지 오래이다. 자본주의 시발점인 유럽에서는 부자가 대체로 존경을 받아 왔는데 이는 부자값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금 잘내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데 누가 돌맹이를 던지겠는가? 그러나 서양에 '부자라고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을 보면 돈이 행복지수의 으뜸은 아닌 듯하다.

대체로 선진국 상류층은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유하되 다른 덕목을 지니지 못하면 부유층은 될지언정 상류층 대접은 받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상류층 인사로 대우를 받으려면 지혜와 절제 그리고 용기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도리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슬기를 지니는 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고 있다. 지혜는 단순히 배우거나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의 개념보다는 그 폭이 넓다고 하겠다. 절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격요건인데 매사를 알맞게 조절하고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말이나 행동은 물론 대인관계에서의 절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일컫지만 지혜와 절제를 바탕으로 한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지혜도 없고 절제할 줄 모르면서 매사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용기와는 거리가 먼 만용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면 선진국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만6천달러 수준이고 최근의 달러약세 등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2만달러는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년 가까이 1만달러 생활을 했으니 하루 속히 2만달러를 돌파해서 선진국대열로 치달아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 2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25개국이고 3만달러 이상인 나라도 16개국이고 보면 우리의 갈길이 힘들고 고달파 보이기도 한다. 여하튼 국내 인쇄업계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인쇄인들이 지혜와 절제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갖춘 풍부한 인맥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상류층을 두텁게 쌓음으로써 인쇄문화산업을 밝게 비추는 등대역할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기대해 본다.

오세의 편집주간